

國際經濟 동향과 企業人 자세

란체스터 판매 전략 연구소가 企業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金泰東日刊内外經濟·코리아헤럴드 사장은 「국제경제 동향과 기업인의 자세」란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은 金사장의 강연요지를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註—

우리나라의 企業은 73년 제 1차 유류파동, 79년에 있는 제 2차 油類파동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80년대 접어들어 석유 파동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1.4분기 중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1.7%를 기록한 것은 경제침체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自國의 산업보호라는 미명아래 후진국들에 대한 쿼터 수입자율규제 등으로 보호무역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선진국들의 물가상승율은 연평균 50년대에 2.5%, 61~70년 4.1%, 71~79년 8.1%였다.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은 「油價인상」이다. 產油國들은 계속 석유생산량을 감축함으로써 원유 가격의 상승을 유발,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海外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한국의 경제는 수출일변도 정책으로 內需시장의 개발이 미흡한데다 重化學공업정책의 차질로 景氣회복을 위한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이러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① 勞使분규의 극소화 ② 企業의 재투자 분위 기초성 ③ 관광자원의 개발 ④ 부동산양도소

득세의 감면등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난국 타개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룩돼야할 문제는 「技術革新」이다.

선진공업국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선진공업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혁신에 기업과의 보조를 맞춰 나가야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불황타개를 위해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펴 기업의 도산과 휴폐업을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R&D(연구개발) 투자액의 격감으로 인해 기술혁신은 크게 부진한 상태이다.

16년만에 맞이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우리경제는 중대한 局面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1~4월사이 신흥공업국의 수출신장율은 싱가포르 56.4% 자유중국 33.4% 홍콩 30.4%로 나타났다. 한국은 같은 기간동안 21.1%로 이들 나라중 가장 뒤떨어졌다. 이같은 원인은 근대화의 출발이 늦고 인플레이션소가 그들 나라보다 더욱 심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은 現時局을 정확히 간파, 종업원의 生存을 위하는데 기업경영의 역점을 뒤야한다.